

아이들이 주인공 되는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 개막

자연 속에서 배우고 노는 교육형 축제... 인기 캐릭터·친환경 체험 웃음꽃 '활짝'

가족이 함께 참여하고 아이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축제가 강진만에 찾아온다. 25일부터 11월 2일까지 9일 동안 열리는 제10회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는 어린이 중심 프로그램을 확대해 교육과 놀이가 결합된 체험형 생태축제로 꾸며진다.

올해 축제에서는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창의적인 체험 부스가 곳곳에 마련된다. 갈대를 활용한 화관 만들기, 버려진 병뚜껑이나 커피박을 재활용한 친환경 키팅 제작, AI를 활용하여 음악을 만드는 AI 가족송 체험, 에어바운스 위에서 즐기는 워터볼 오리타기 등 다양한 활동이 운영된다. 단순한 관람이 아니라 '직접 만들고, 느끼는' 프로그램들로 아이들의 만족도와 참여도를 높일 계획이다.

어린이들이 기다리는 대표 무대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25일에는 뽀로로 싱어쇼, 11월 1일에는 브레드야발소 싱어쇼가 열려 캐릭터와 함께 노래하고 춤추는 시간을 선사한다. 이와 함께 25일과 26일, 30일에는 '우유댄스파티'가 진행되며, DJ와

함께하는 댄스게임과 챌린지, 우유와 솜사탕, 요구르트 등이 함께 제공돼 어린이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더한다.

자연을 배움의 장으로 삼은 '갈대숲 생태탐험대'에서는 전문 해설사와 함께 고니, 짙뚱어, 붉은발말뚱개 등 습지 생태를 관찰하며 환경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다. 또한 '페이퍼도이 만들기', '갈대화관 만들기', '분필놀이' 등 예술 감성을 자극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하여, 어린이들이 스스로 창의력을 발휘하며 즐길 수 있는 체험 위주로 구성됐다.

이 밖에 강진교육지원청이 준비한 '공생만마당 체험존'에서는 AI 오목 로봇, 플라스틱 사출 체험, 이동 과학버스 4D 영상관 등 미래형 교육 콘텐츠가 운영된다. 배드민턴, 탁구, 축구, 배드민턴 등 스포츠 체험도 호랑이 아크릴 키팅 만들기 등 여러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아이들이 창의력과 호기심을 키울 수 있다.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도 한층 강화됐다. 인디언 텐트 등 휴게쉼터와 유모차 대여, 모유수유실이 운영되어



부모는 편안히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또한 피크닉 세트를 대여하여, 갈대밭을 배경으로 돛자리를 펴고 도시락을 즐기며 자연 속 여유를 느낄 수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올해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는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어 배우고 노는 생태형 교육축제"라며 "자연이 교실이 되고, 가족이 함께 웃는 공간이 되도록 준비했다. 강진만의 생태 자원을 중심으로 전라남도교육청과 강진교육지원청이 함께 기획한 체험 프로그램들은

단순한 놀이를 넘어 배움의 현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갈대밭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처럼 아이들의 웃음이 강진 전역에 번지길 바란다"며 "이번 축제를 통해 부모와 아이가 함께 추억을 쌓고,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 군에서도 마지막까지 꼼꼼히 준비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강진/손경설 기자



대한민국 치유길 1호 신지 명사십리. 맨발 걷기 명소 우뚝 선해의 자연환경이 만들어낸 대한민국 대표 치유 명소

전남 완도군의 신지 명사십리가 지난 '24년 10월 '대한민국 맨발 걷기 치유길 1호'로 공식 선포되며 맨발 걷기의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대한민국 맨발 걷기 치유길 1호'는 3.8km의 모래 해변과 더불어 1km의 황돛길, 해상 숲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 맨발 걷기에 최적이다.

특히 모래 입자는 부드러운 면서도 적당한 자극을 줘 지압 효과가 뛰어나며, 황돛길은 흙의 온기와 자연이 주는 에너지를 온전히 느낄 수 있어 방문객들의 만족도가 높다.

또한 신지 명사십리는 '공기 비타민'이라 불리는 산소 음이온이 도시에 비해 50배 이상 풍부해 걸으며 기후 치유를 하기에 적합하다.

친환경적이고 안전해서 국제 인증인 '블루 플래그'를 국내 최초로 획득한 이래 8년 연속 인증을 받았다.

지난 7월에는 '해양치유 완도 전국 맨발 걷기 축제'가 열려 신지 명사십리를 찾은 1,000여 명의 참가자들은 청정한 자연과 교감하며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다.

10월 25일에는 '제2회 명사십리 치유길 맨발 걷기 페스티벌'이 열린다.

영국인 Mr. John 씨는 "방광암 수술 후 신지 명사십리에서 6개월 동안 맨발 걷기를 하고 진료를 받았는데, 담당 의사로부터 건강하게 회복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전한 바 있다.

신우철 군수는 "신지 명사십리는 자연이 주는 치유와 회복이 공간으로 맨발 걷기에 이보다 좋은 곳은 없다"면서 "앞으로도 맨발 걷기, 명상, 치유 등 힐링 콘텐츠를 통해 세계질 웰니스 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완도/장선우 기자

장성군이 '장성 황룡강 가을꽃축제' 기간인 24일 황룡정원 일원에서 '금연 다짐 걷기대회'를 가졌다.

금연 실천을 다짐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과 지역주민, 김한중 장성군수, 심민섭 장성군의회 의장, 기관·단체장 등 400여 명이 참가했다.

식전 공연이 이어 열린 1부 금연 선언식에서는 금연 문화 확산 유공자 표창과 금연 아파트 지정 현판 전달, 금연 다짐 선언, '담배 없는 건강한 성장장성' 구호 제

"담배는 멀리, 건강은 가까이" 장성군, 금연 다짐 걷기대회 '호우'

황룡정원~용작교 3km 구간 걸으며 건강 중요성 되새겨

장 등이 진행됐다. 올해 금연 문화 확산 유공자로는 김광윤·김선희·박래수·전종아 씨가 선정돼 청중의 박수를 받았다.

이어진 2부에선 본격적인 '걷기대회'가 시작됐다. 참가자들은 황룡정원을 출발해

용작교, 서삼교를 지나 출발 지점으로 복귀하는 3km 구간을 걸었다.

대회에 참여한 이모 씨(장성읍)는 "맑은 공기를 마시며 가을꽃 핀 황룡강을 함께 걸으니 금연해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행사장 한편에는 건

강증진 체험관이 마련돼 방문객들에게 금연 체험, 체성분 측정, 스트레스 검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황룡강 가을꽃축제와 금연 걷기대회를 결합해 아름다운 꽃길을 걸으며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시간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세대별 맞춤형 금연정책 추진으로 '건강한 장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황해연 기자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지난 23일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2025 바이어 초청 품평 상담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영광군이 주최하고 ㈜에스플러스가 주관했으며, 보리를 소속 12개 보리 가공업체와 영광 농특산물 작목반 등 총 25개 업체가 참여했다. 영광 보리산업 특구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판로 확대와 유통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보리올 등 영광 농특산물, 전국 유통 판로 확대 시동

바이어 초청 품평 상담회로 25개 업체 한자리에

마련된 자리다. 롯데마트, 우체국쇼핑 등 전국의 유명 바이어 11명이 참석한 품평 상담회는 1부(10:00~12:00)에서 참여업체의 미니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제품별 특성과 경쟁력을 소개했으며, 이어진 바이어 자유 관람 시

간에는 제품을 직접 체험·시식하며 현장 반응을 확인했다.

중식 이후 열린 2부(13:00~15:00)는 바이어 개별 집중 상담회로 진행돼 국내 유통·판매 전문 MD 및 대형 유통업체 바이어들과 참여업체 간 1:1 맞춤형 비즈니스

상담이 이루어졌다. 특히 상품성·패키지·가격 경쟁력 등 실질적인 유통 연계 논의가 활발히 이뤄져 높은 성과를 거뒀다.

장세일 군수는 개막식에서 "영광의 건강한 식품과 우수한 특산물이 새로운 시장과 만나 더 넓은 판로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판로 지원, 공동 마케팅, 품질 고도화 등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영광/이현식 기자

담양군 대덕면은 오는 11월 1일 운암저수지 일원에서 '자연과 더불어 행복한 공동체'를 주제로 제1회 대덕면 물구름길축제를 연다.

이번 축제는 대덕면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이미행)가 주최·주관하며, 가을 정취 가득한 운암저수지를 배경으로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릴 수 있

담양군, 자연과 함께하는 '제1회 대덕면 물구름길축제' 개막

운암저수지 일원 체험·전시·공연 등 다양한 행사 마련

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행사장에서는 마을 전경사진 전시와 운암저수지 스탬프투어, 주민노래자랑, 초청

가수 손빈·나영의 무대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펼쳐진다.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청동우리

방생 행사도 진행된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노래자랑도 열린다. 접수는 오는 28일까지 진행된다. 이 밖에도 전통놀이, 캘리그라피, 라탄공예 체험·판매, 포토존 등 부대행사가 함께 운영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예정이다. 담양/이종욱 기자

"추억을 담다, 사랑을 담다" 삼흥단풍 여행 속으로

구례군, 제49회 지리산피아골단풍축제 개최

전남 구례군은 오는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지리산 피아골 일원에서 「제49회 지리산피아골단풍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지리산피아골단풍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손대삼)가 주최하며, 주무대인 피아골 단풍공원에서 '테트로, 북고 감상'을 주제로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축제는 첫날, 지리산 산신에게 군민의 번영과 평안을 기원하는 단풍 제례로 막을 올리며, ▲참뽕 김혜진 작가의 캘리그라피 퍼포먼스 ▲태권도 시범 ▲전통·퓨전 국악 공연 ▲삼흥 단풍콘서트 등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무대가 펼쳐진다.

둘째 날에는 ▲8인3색 버스킹 공연, ▲마술쇼, ▲낭만 색소폰 공연 등 가을의 정취를 더하는 다채로운 공연이 진행된다.

관광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이색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울긋불긋 단풍 패션쇼·쇼쇼〉, 〈나도 가수다! 북고노래자랑〉을 비롯해 테트로 감상다방, 북고의상 체험, 군밤 굽기·달고나 만들기, 보물찾기, 단풍숲 걷기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이 준비되어 있다.

또한 지역 특산물 판매장과 오색비빔밥, 손두부, 산채김밥 등 먹거리 부스도 운영된다.

같은 기간 산동면에서는 지리산 베이 스킵 및 산수유 열매축제도 함께 열려, 구례군 전역이 가을 관광지로 활기를 더할 예정이다.

김순호 군수는 "방문객의 안전과 교통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깊어가는 가을, 단풍과 사람이 어우러진 피아골에서 방문객 모두가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구례/한정호 기자

